

The Good Samaritan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 평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o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 독서]..... 신명 30,10-14

[화답송]..... 시편 69(68),14와 17.30-31.33-34.36 그리고 37 (©33참조)



(후렴) 가난한 이들이여,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 - 라.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그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 가련한 저는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를 도우시어 보호하소서. 하느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감사 노래로 그분을 기리리라. ◎

[제2 독서]..... 콜로 1,15-20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니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복음 환호송]..... 요한 6,63.68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0, 25-37

[성가안내]

- 입당성가 [329] 미사 시작
- 봉헌성가 [210] 나의 생명 드리니
- 성체성가 [503] 생명의 양식
- 파견성가 [77] 주 천주의 권능과

미사 봉헌

영미사	봉헌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김용기 요셉 박난성 요셉 프란치스코 영혼과 조상님들 영혼을 위하여 이정원, 김귀순	김지영 유스티나 익명 양미숙 마리아 이기수 베네딕토
생미사	봉헌
이정현 헬레나 정종철 안드레아, 장해라 마리 스텔라, 방상욱 베드로 (생일 축하) 하태일 안드레아, 방지영 비올리나 가정 위하여 박태준 베네딕도 (죽일 축하) 김승환 베네딕도 유기호 베네딕도 김기례 레지나 정희자 리드비나 (빠른 회복을 위하여)	백이백 아오스딩, 백승민 돈보스코 하늘처럼 성가대 하태일, 방지영 우리 즐거움의 원천 부모 익명 익명 울뜨레야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7월 10일	백이백 아오스딩	유대건 미카엘	최진영 수산나	최진영 수산나	이영혜 안젤라	한서희 데레사	
7월 17일	조소연 마르티나	민완준 필립보	김애희 테클라	김애희 테클라	양미숙 마리아	한서희 데레사	이성하 시몬

- 요셉회 월례회의 있습니다.
 - 미사 후, 교육관 2E
- 성모회 월례회의 있습니다.
 - 미사 후, 교육관 2C
- 연령회 월례회의 있습니다.
 - 미사 후, 교육관 1B
- 제39차 미동북부지구 울뜨레야 모임 잘 다녀왔습니다.
 - 민완준 필립보 부회장님께서 공로상 받으셨습니다.
 - 단체경연에서 3등 했습니다.
 - 참석 및 봉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한가위(추석) 합동 위령미사
 - 일 시: 9월 11일
 - 장 소: 뉴튼 수도원
 - 신 청: 각 단체장에게 참가 신청

* 단체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당 뒤편에 있는 바구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2. 온라인 주보의 경우, <우리들의 정성> 코너는 삭제되며, 성당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인쇄본 주보에만 게시됩니다.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아랫 성당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2층 사무실
혼인성사	
유아세례	

[단체모임 안내]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6:00pm~7:0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FYMN)	넷째 주일 11:00am ~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	Conf. Rm(2F)
'신명' 풍물패	둘째,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하늘처럼 성가대	매 주일 8:30am~1:30pm	교육관 3B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청년 전례부	둘째 토요일 3pm~5pm	교육관 2E
청년 성가대	둘째 토요일 3pm~5pm	교육관 3B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김순한 (루시아) 김옥지 (아가다)
- 이정주 (소화데레사) 김동희 (헬레나)
- 정창동 (폴리나) 지군자 (스테파니)
- 진정은 (마리아) 이진자 (세실리아)
- 고종호 (마태오) 이병국 (요한)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박명순 (모니카)
- 이경희 (미카엘라)

[2022년 7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노인들’

민족의 뿌리와 기억의 상징인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젊은이들을 도와 그들이 희망과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도록 기도합니다.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ISC NEW YORK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ing
졸업/OPT 후 진로고민 및
진학/취업/자기소개서/면접준비 무료상담
iscnewyorkmetro@gmail.com
1-917-386-7405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원조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오늘의 복음 묵상

(루카 10, 25-37)

루카가 전해주는 오늘 복음은 '가장 큰 계명' 이야기입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의 끝에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있다는 것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알게 된 율법을 실제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율법 교사가 자신이 던진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 그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가르침, 토라를 연구하는 법의 전문가였지만 탁상공론에 빠져 길을 잃은 자기 현실이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루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이웃'에 대한 개념 정의 문제로 자비 실천을 유보하는 태도를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문제의 답은 '실천'입니다.

오늘 제1 독서 신명기는 "말씀은 가까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가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 마음속에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에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기심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제2 독서 콜로새서는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모든 이가 만져볼 수 있는 거리에 계신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필요한 실제적 실천의 모범이 되시고 앞서가시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실천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혈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 2,15-16)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

사제직이란?

가톨릭교회는 오랫동안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죄짓지 말라'와 '성인들처럼 완전한 자가 돼라'는 두 가지. 물론 이 두 가지는 복음에 근거한 것이기에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 목표에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 사람 마음의 여러 가지 변수들, 허약함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군인들처럼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그로 인해 생긴 신경증 증세들을 믿음의 약한 것으로 치부했고, 심리적 부작용들을 은폐하거나 '영적 포장'조차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병적인 죄책감을 비롯한 신경증적인 증세들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불완전 같은 종교적 우울증이나 완전 강박증 같은 증세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종교에 대한 식견을 가진 심리학자들에 의해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자들이 신경증적인 신앙생활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엄격하고 잔정 없는 부모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쓰는 아이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식들의 행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행복보다는 죄를 강조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짓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강조하신 것을 생각해보면 가치순위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가 신자들에게 죄책감을 안겨주면서 종교적 지배 욕구를 채우려고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온 교우분들의 마음 상태는 처절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제들은 신자들을 죄인을 만드는 직분이 아니라 행복감을 안겨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내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시기에는 위로와 격려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가뜩이나 무거운 인생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거나 교회가 신자들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사제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 신자들이 사제를 보고 불행감, 두려움을 느낀다면 사제 직분 뿐만 아니라 사제로서의 인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가는 사제, 신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사제가 참 사제입니다.